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遠近) 구도의 공간 배치와 기능*

김 현 화**

차 례

- | | |
|-------------------|-------------------|
| 1. 서론 | 3. 문학적 기능 |
| 2. 공간 배치 양상 | 1) 혼재된 이념의 사회상 복제 |
| 1) 근거리 공간 구도의 정태성 | 2) 공포담의 수용과 대리만족 |
| 2) 원거리 공간 구도의 동태성 |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遠近) 구도의 공간 배치와 문학적 기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향당은 형제간의 분리와 감금, 기아(飢餓)와 육체적 노동, 통정과 수태란 흥문 속에서 주인공을 자살로 이끄는 중심 공간이다. 인향당을 정점으로 가장 근거리에 배치된 김좌수의 처소는 가부장의 체면 때문에 여식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공간이다. 인향이 온전히 부활하는 유한립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841)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처소는 유교적 통념이 국가와 사회의 기틀로 여전히 견재한다는 사실을 투사해 내는 공간이다. 인향당에서 근거리에 배치된 공간들은 기존의 관습과 이념이 정태성을 띠고 존재한다.

인향당에서 원거리에 배치된 목화밭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원초적인 본능의 인물들을 동태적으로 투사해 낸다. 동헌은 ‘소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비밀스러운 사건을 대중이 공유하도록 확산시키는 동태적 공간이다. 심천동은 서사 주체의 자살과 부활, 복수를 담은 동태적 공간이다. 인향당에서 원거리에 배치된 공간들은 기존의 관습적이고도 전형적인 등장인물의 사고행위와 사건 전개에 역동성을 가미한 동태성을 선사한다.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 구도의 공간 배치는 정태성과 동태성의 공간 양상을 축조했다. 이 공간 양상은 이념의 보수와 해체가 혼재하던 당대 사회상을 복제해 내는 문학적 기능을 한다. 나아가 살해와 자살 같은 참극에서 출발한 공포담을 수용하는 가운데 균등한 삶에 대한 대리만족을 추구하고자 했던 당대인의 심리를 투영하는 문학적 기능을 한다.

주제어 : 김인향전, 가정소설, 계모형소설, 공포담, 공간 구도, 고전소설 공간

1. 서론

가정은 흔히 한 사회 구조를 응축한 최소 단위 공간으로 비유된다. 부부와 자식을 중심으로 한 집단 성격이 물리적 공간 면에서, 생활 공동체 면에서 사회 구조와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자아 너머의 타자와 사회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17세기 이후 가정소설작품이 출현하게 된 것은 소설사 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가정 내의 모순이

고발되기 시작했고, 그 모순을 통해 사회적 관습과 이념의 모순이 중첩된다는 사실을 표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인향전』은 이와 같은 역사적 격변 속에서 진통을 겪는 서사 주체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이른바 계모가 본처의 자녀를 상대로 학대 및 살해를 모사하다 공적 처벌을 받는 가정소설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연구 주류를 짚어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의 비극성을 극복하지 못한 계모형 소설의 초기 작품이라거나 앞선 작품의 아류작 정도로 언급되는가 하면, 서사 주체가 17세기 후반의 사회, 문화적 진통 속에서 독립적이고도 개성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들어 근대소설의 지척에 선 작품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전자는 『장화홍련전』의 계모 모티프를 관습적으로 답습했다는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후자는 그러한 상투적인 비교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나타난 논의들이다.

한 작품을 두고 이와 같은 양극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서사 주체가 보여주는 삶의 지향성이 복고와 새로움의 경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인향전』의 서사 주체는 관습적이고 통념적 이념으로 작동하는 입전 인물로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인공의 인격이 계모와 같은 역동적 파고와 만날 때 어떠한 대응 자세를 취하며 그 전형성을 유지하는지 살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반대로 그 전형성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전환된 사고행위에 방향성을 두면 이 작품만의 심도 있는 문학적 성취를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 주목한 『김인향전』의 연구 성과는 대략 세 가지 측면이다. 계모형 소설로서의 시원에 초점을 두고 가정 비극의 원인을 살핀 연구가 그 첫 번째이다. 시원에 초점을 둔 만큼 창작 시기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계모형 소설도 성장체로서 변모한다는 점에 착안해 초기의 작품인지 근대소설로 전환하는 시기의 작품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살’ 후의 ‘부활’과 같은 전형성과 환상성에서 전대

서사물의 답습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혼 모티프의 경우 애정소설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므로 애정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¹⁾ 이 논의들의 경우 「장화홍련전」의 모방작이라거나 기존 설화 모티프에 의존한 작품이라는 접근이 우세해 「김인향전」만의 개성을 찾는 데는 한계점을 보인다.

둘째,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해당하는,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수동적으로 따르는 주인공의 행위에 대해 당대의 집단적 보수성 면에서 접근한 논의가 상당수다. 한편으로는 여주인공의 부활을 통해 당대인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의 질서와 가치 체계에 대한 낭만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김인향전」의 주제의식을 읽어내고자 한 노력도 뒤따랐다.²⁾ 이 논의들의 경우 통념에 결박된 ‘죽음(자살)’에 주목해 작품 전체의 인과 작용에 경도된 나머지 여타의 창작 기법을 살피는 부분에는 소원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이 바로 창작 기법에 대한 연구 성과다. 앞의 논의들에서 벗어나 창작 미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성과들이다. 등장인물의

-
- 1)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계모형 가정소설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17집, 월인, 2000; 이윤경, 「계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이금희, 「계모형 소설 연구: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9집, 월인, 2005; 구계찬, 「김인향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5; 우미진,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의 대비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7; 윤정안, 「김인향전의 의미 형상화 방식: 장화홍련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2호, 국어국문학회, 2009; 방은숙, 「계모형 가정소설의 인물성격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논문, 2002; 백수근,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4; 정일승,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특징 고찰」,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0.
- 2)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8;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김현수, 「김인향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선영, 「원귀형 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아랑전설,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06.

수직적이고도 수평적 관계를 통한 창작 의도 찾기라거나 노인의 삶에 대한 추적, 애도 작업을 통해 해석해 보는 재생의 의미, 무당 할미와 같은 동모자를 통한 등장인물의 형상화 방식 유추³⁾ 등 이 서사가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 출현할 수 있었던 창작 기반을 다루었다.

그러나 『김인향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고전소설 작품의 연구 성과에 비해 그 의론 영역이 협소하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성과 토대 위에서 세 번째 연구 영역의 외연을 확장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바로 『김인향전』에 묘사되거나 실사된 배경, 즉 공간의 구도에 따른 작품성을 변별해 보는 것이다. 공간은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곳이자 다양한 대상과 현상이 존재하는 장이다. 소설에서의 인물은 공간과 함께 시작하고 공간과 함께 마무리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연유로 하나의 문학작품에 축조된 공간을 살피는 일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과 사유체계를 유추해 내고 그 문학적 기능을 살피는 방증으로 유효하다. 그런데도 이 작품의 공간 연구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듯하다.

고전소설의 공간 연구 논의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성과가 보인다. 다만 “비현실적 공간에 치중하여 현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온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실 공간은 비현실 공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현실을 다루면서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물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에 처한 인물의 행위와 갈등에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인이 될 수 있을 것”⁴⁾이란

3) 이금희, 『김인향전에 나타난 노인(어른) 삶의 양상』, 『문명연지』 제4권 제2호, 한국문명학회, 2003;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 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제38집, 동양고전학회, 2010;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애도 부제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김수연, 『모성 대상에 대한 자기서사의 단절과 재간: 장화홍련전』, 『고소설연구』 제40집, 월인, 2015.

4) 탁원정, 『조선 후기 고전소설의 공간 미학』, 보고사, 2013, 22쪽.

문제 지적은 『김인향전』의 공간 구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주안점이 된다. 원귀나 원혼으로서의 인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존했던 공간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 공간들은 특수한 구도 아래 배치되었을 것이고 등장인물의 사고행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지 위에서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遠近) 구도의 공간 배치와 문학적 기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와 사건 전개가 정적이거나 동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근거리의 공간 구도 안에서는 정태성을 보이고 원거리의 공간 구도 안에서는 동태성을 보이는⁵⁾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 전개가 주목된다. 원근 구도의 공간 배치는 혼재된 이념의 사회상을 복제하고, 공포담의 수용과 대리만족이란 문학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⁶⁾

2. 공간 배치 양상

공간 구도에 대한 논의는 『김인향전』이 고도의 문법을 기반으로 출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작품이 함의한 보수적 통념을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을 개혁적 의식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는 없

5)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공간의 ‘정태성’과 ‘동태성’은 서사 주체의 사고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공간에 대한 정의이자 관습과 제도로부터 탈로(脫路)하고자 하는 욕망 공간에 대한 정의다. “공간은 개개인들에게 의미 있는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평균적인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37쪽.) 이처럼 조선 후기의 평균적인 의미를 간직한 공간들의 정태성과 동태성을 타진하는 일은 『김인향전』만의 문학적성을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6)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수록 <김인향전>(활자본), 푸른사상, 2005). 인용할 경우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 명기한다.

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되 공간 구도를 통해 당대인이 염원하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조명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 작품이 흥미 있는 독서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단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인향전』의 사건 단락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좌수와 왕씨 부인은 삼 남매를 두지만 부인이 득병하여 운명하다
- ② 인향의 청으로 김좌수는 18세 정씨를 후실로 들이다
- ③ 정씨는 인향 자매를 후원 ‘인향당’에 가둔 채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다
- ④ 유성윤은 인향과 택일을 잡았으나 과거 영을 받들고 상경하다
- ⑤ 정씨와 무당 할미가 공모해 ‘목화밭’에서 인향에게 떡을 먹여 신병을 앓게 하다
- ⑥ 성윤이 장원급제하자 김좌수가 인향에게 신랑의 의복을 지으라 명하다
- ⑦ 절인 노파가 인향이 부정한 행실로 임신했다고 마을에 소문을 내다
- ⑧ 김좌수가 인형에게 인향을 심천동 연못에 넣어 죽이라 명하다
- ⑨ 인향이 자진해 연못으로 뛰어들어 죽자 인함이 그 사실을 알고 목을 매 죽다
- ⑩ 김좌수가 두 딸의 죽음에 통곡하다 죽다
- ⑪ 인향 자매의 원혼이 ‘동헌’ 찾아와 설원하니 관장들이 놀라 죽기를 반복하다
- ⑫ 임금이 폐읍을 회복하란 하교에 전두용이 부사로 내려오자 인향 자매가 찾아와 설원하다
- ⑬ 부사가 ‘심천동’에서 자매의 시신을 찾아 장사 지내니 인향 자매가 백배사례하다
- ⑭ 유한림이 제물을 차려 심천동에서 혼백을 위로하자 인향이 찾아와 하늘에 축수해 자신을 재생시켜 달라 청하다

- ⑮ 유한림은 원근 제족을 모아 범사들과 함께 심천동에서 제물을 차리고 회생 발원을 축원하다
- ⑯ 유한림은 인향이 전한 회생수로 인향 자매를 부활시키다
- ⑰ 인향과 유한림이 성혼한 뒤 부귀영화를 누리다

『김인향전』에 배치된 공간들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선의와 악의가 순환하는 서사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공간 구도는 작품의 구체적 형상화에 기여하고 주제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적 질서’⁷⁾로 다가온다. 『김인향전』의 문학성을 조명하는 데 있어 공간 구도는 그만큼 의미 면에서나 형국 면에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간의 구도에 따라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⁸⁾ 주인공의 공간과 가까운 구도일수록 정태적 성격으로 나타나고 거리가 먼 구도일수록 동태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근거리 공간 구도의 정태성

『김인향전』의 서사는 주인공의 부모와 관련한 가계를 부각하며 시작하기 전 서사 주체의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출발한다. 곧 ①의 사건 단락 이전에, 이후 벌어질 비극적 가정사를 암시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사건 단락 ①에서 ⑰에 이르는 서사에 걸쳐 가장 중요한 공간인 인향당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 장면이 등장한다. 인향당은 주인공 인향이 유년 시절부터 기거해 온 독립적 처소이자 형제간의 분리와 감금, 기아

7) “작품에서 어둠과 밝음, 죽음과 삶, 보수와 진보 등이 함께 나타나는 공간적 질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따지는 데 있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163쪽.)

8) 이러한 논지는 탁원정이 『장화홍련전』의 서사 공간을 집, 못, 관아의 세 공간으로 나누어 인물들의 존재 조건으로서 인물의 행위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의와 비견해 볼 만하다(탁원정, 앞의 책, 343쪽 축약). 『김인향전』의 문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있어 전범처럼 대비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와 추위 속에서 모진 삶을 연명한 곳이다. 외간 남자와 간통하고 아이를 배었다는 흉문 속에서 결국 인향을 자살로 이끄는 공간이다.

이처럼 극적인 사건을 함의한 공간인 까닭에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인향당 후원 마당에 떨어진 오동나무 잎을 들고 인향과 인함 자매가 모친을 회상하며 우는 장면은 비운(悲運)을 함의하고 있다. “형님,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반년이 되었구료.” 하고 울먹이는 인함의 말에서 이 작품의 정조(情操)가 애상과 비애감으로 지속될 것이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힘없이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은 모친의 보살핌과 사랑을 잃은 인향 자매의 현실과 겹친다. “오동나무 잎사귀를 들고 설움이 북받쳐 서로 잡고 우는” 모습은 이 자매의 현실이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사해 낸다.

인향당을 정점으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공간은 부친인 김좌수의 처소다. 김좌수는 위기에 빠진 자신은 물론 자식의 상황을 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당대의 가부장적 통념에 갇혀 가문의 위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뿐 자신이 처한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인형과 인향, 인함의 나이가 13세, 11세, 9세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지만 김좌수는 상처한 실의에 젖어 가산을 탕진한 채 살아간다. ②에서 보듯 어린 인향이 오히려 어진 이를 구하여 가산을 맡기고 심회를 안녕토록 권한다. 이미 김좌수의 내면에 계획되어 있을 재혼 문제를 어린 인향이 당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그린 것은 가부장의 체면과 위신을 세워 주기 위한 방편이다.

반면에 김좌수는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존재라면 그 인물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앗아 버리는 비정한 인물이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가부장적 논리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협에 빠뜨린다. 후처 정 씨가 삼 남매에게 저지르는 패악을 알지 못하며, 장자인 아들 인형에게 누이인 인향을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공간이 띤 정태성 때문이다.

다. 가부장의 체면만 유지한 채 그 역할은 방기한 공간, 변화의 능동태가 부재한 공간, 『김인향전』이 전대의 문법을 답습한 모방작이라거나 아류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추정도 이와 같은 김좌수 공간의 정체성 때문이다. “비록 김좌수를 심화병으로 죽는 것으로 처리하여 간접적 정치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⁹⁾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관습과 통념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다.

김좌수의 공간처럼 인향당과 근거리에 배치된 공간은 유한림의 장소다. 유한림의 공간 역시 유교적 통념이 강하게 살아 있는 곳이다. 그의 공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인향과 유성운의 택일을 정하자마자 조정에서 과거를 시행한다 소식에 “지필묵을 갖추어 가지고 즉시 떠날새¹⁰⁾란 추상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향을 향해 “택일까지 받았으니 그대는 이미 내 집 사람이 된지라. 귀신이라도 내 집 귀신인즉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¹¹⁾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굳건한 유교적 신념의 소유자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사유체계가 함의된 공간의 인물이기에 이미 사자의 몸이 된 인향에 대한 인의(人義)를 표방하는 인물로 구현된다.

인향과 유한림의 결연 과정을 애정담보다는 인의담(人義談) 성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계모담 이후 나열된 결혼담은 일반적인 계모형소설의 문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¹²⁾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계모형소설이 아니라 애정소설의 유형으로 분류한 논의도 보인다. 그러나 두 인물 사이에는 애정을 형성하는 사건 대신 ‘유교적 인의’를 형성하는 사건이 부각되어 있다. 사건 단락 ⑬⑭⑮에서 보듯 유한림은 유교적 인

9) 이지하, 앞의 논문, 158쪽.

10) 『김인향전』, 181쪽.

11) 『김인향전』, 215쪽.

12) 윤정안, 앞의 논문, 318-320쪽 참조.

의로서 인향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노제를 지낸다. 말 그대로 노제란 인향이 번사한 장소에서 치른 길 위의 제사를 의미하는데 인향에 대한 유한림의 인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면부지의 배필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가 유교적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작품이 가정 비극과 아울러 애정담을 주제로 삼으려 했다면 ⑪과 ⑫의 사건을 부사가 아닌 유한림이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⑪과 ⑫의 공적 공간에는 유한림이 등장하지 않는다. 국가(임금)를 대변하는 부사가 등장한다. 그는 기존 질서와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유한림은 그 질서와 제도를 가능케 하는 유교적 이념이자 예법의 상징이다. 부사가 폐읍을 살리고, 유한림이 인향을 부활시키는 기능을 나눈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틀로 여전히 유교적 통념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표방한다.¹³⁾

살펴본 것처럼 인향의 처소인 인향당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공간들은 기존의 유교적 사유체계가 정체성을 띠고 존재한다. 부친인 김좌수의 공간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인향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몬다. 반면에 유한림의 공간은 여전히 사회적 기틀로 건재하고 있던 유교적 가치를 실현해 낸다. 기존의 관습과 통념이 긍정적으로 발화되느냐 부정적으로 발화되느냐에 따라 공간의 정체성은 달리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국가와 사회의 굳건한 기틀로 작용하는 유교적 가치라 할지라도 선의와 악의의 사고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당대인 스스로 인정한 결과다.

『김인향전』이 구현하고자 한 유교적 질서의 향방은 선의적 세계관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주인공 인향의 완벽한 부활이 심천동

13) “비극의 주인공은 인향이었지만 재건의 주인공은 유장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성적 질서에 의해서 세계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이재하, 앞의 논문, 150쪽.)

연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한림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인향이 자살한 곳은 유교적 세계관 너머의 곳이다. 가정 밖으로 내몰린 원귀는 유교 국가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존재와도 같다. 국가와 사회의 유교적 이념을 축약한 세계가 바로 가정이고 그곳의 가부장은 조정(왕)의 대리자와 같은 위치였다. 가정 밖의 원귀는 결국 가부장의 허물을 의미하고 이는 곧 조정(왕)의 실정(失政)을 은닉한 존재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향은 회생수가 있었음에도 심천동 무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유한림의 집에 와서야 온전히 부활한 것이다. 회생수는 사자인 인향과 산자인 유한림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할 뿐이다. 유가적 덕목을 갖춘 유한림의 공간에 인향을 편입시킴으로써 완벽한 유교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 기존의 질서와 통념이 정태적으로 살아 있는 유한림의 공간을 옹호하고 유도한 결과다. 아울러 유한림의 집에서 부활한 인향과 인함, 그리고 인형까지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 서사는 ‘고생 끝의 낙’이라는 유교적 부귀영화의 정태적 공간성을 답습한다.

2) 원거리 공간 구도의 동태성

『김인향전』의 가정 비극은 가부장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다. 인향을 살해하려 한 김좌수의 반인륜적 행위는 사법적 처단을 받아야 할 행위다. 그는 도덕적 이성보다는 가문의 위상과 위신을 저버릴 수 없는 사회적 풍토에 지배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머무는 공간은 기존의 질서와 제도에 정태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념의 정태성을 노려 자신의 욕망과 이득을 꾀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인향의 계모 정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다.

인향 납매를 향한 정 씨의 시기와 질시는 정서적, 육체적 위해로 나타난다. 그녀의 가해는 정태적 공간에서 원거리가 될수록 더욱 교활해진다. 김좌수의 공간이나 인향당에서는 정서적인 위해를 가한다. 만이인

인형과 인향 자매를 분리해 몇 해 동안 볼 수 없게 한다든지 심복 춘삼에게 뒷담을 털어 외간 남자가 왕래한 것처럼 꾸민다든지 음담패설이 가득한 편지를 몰래 넣어 두었다가 김좌수의 눈에 발각되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가해다. 의식을 챙겨 주지 않으며 춥고 굶주린 육체적 고통도 가한다.

인향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위해는 인향당에서 원거리에 배치된 목화밭에서 구제화된다. 잔복골 목화밭은 인향을 해하고자 하는 정 씨의 술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정 씨와 공모한 무당 할미가 들고 온 떡을 먹고 인향은 신병(身病)을 앓는다. 이 신병으로 인해 수태했다는 누명을 쓰고 김좌수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다. 정 씨에게 이백 냥을 받은 대가로 무당 할미가 촌가를 돌며 김좌수의 딸이 부정한 행실로 아이를 배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결과다. 정 씨가 이처럼 극단적 모략을 꾸민 이유는 인향의 배필 상대인 유성운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자신이 낳은 딸이 누리지 못하는 신분적, 계층적 자괴감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계모의 반발은 인향의 생모에 대한 심리적 고착, 곧 죽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고착이 강하게 작용”¹⁴⁾한 결과란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인향은 스스로 부친에게 후처를 들이라 권했지만 심리적으로는 김좌수의 재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의 안위와 존속을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어머니의 자리를 다른 여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속마음을 죽은 모친에게 쏟아내는 인향의 태도에서 부친과 계모에 대한 이중적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정 씨의 입장에서 그러한 인향의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암묵적 도발로 비쳤을 것이다. 인향에 대한 원념은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는 극단적 선

14) 한상현은, “『김인향전』에서 심화되는 대립과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욕망도 아니요, 가계 계승의 욕망과도 관련이 없다면서 생모와 관련된 인향의 유아적 몽상이 주인공의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살폈다(한상현, 앞의 논문, 208-215쪽 참조).

택으로 치닫는다.

정 씨와 무당 할미의 계약은 정태적 공간의 인물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도덕적 사유로 굳건한 사회라고 해도 원초적인 본능을 거세하지 못한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장치다. 악인들이지만 이들의 욕망이 오히려 역동적이다. 모사를 꾸밀 수 있을 만큼 인향당에서 원거리에 목화밭을 배치한 것도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기에 거리낌 없는(예법이나 양심으로부터) 공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동헌 역시 인향당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공간이다. 원귀가 된 인향과 인함 자매가 신원하는 공간이다. 동헌은 ‘소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중이 비밀스러운 사건을 공유하는 처소로 기능한다. 이 공간은 수평적 체계의 의사 전달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현실계의 관장이 초월계의 원귀와 마주하는 관계에서 대중의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수직적 세계관 아래 살고 있던 당대인의 내면에 동헌 공간의 이색적인 조우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용되었을 법하다. “원귀와 수평관계를 이루지 못한 관원들은 원귀들을 해원시키지 못한 채 병들어 죽고 수평관계를 이룬 관원은 원귀들을 해원시킴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¹⁵⁾하는 대목에서 수평적 소통방식을 발견한다. 초월계 존재의 원망(願望)을 현실계의 관장이 일대일로 만나 해결해 주는 동헌 공간은 곧 당대의 현안을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대중의식을 보여준다.

심천동은 인향당에서 가장 원거리에 배치된 공간이다. 서사 주체의 자살과 부활, 복수가 담긴 역동적 공간이다. 주인공의 육신이 주검이라는 형태로 단절된 현실적 공간이자 회생수로 부활하는 초월적 공간이다. 주인공 인향이, “생존해 있을 때는 현실 논리에 입각한 집단적의식에 자신을 함몰시켰다가 죽은 후에야 ‘정주하는 세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15) 이금희, 앞의 논문(2003), 179-180쪽 참조.

남성 관장들을 병들어 죽게 하면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¹⁶⁾ 곳이 심천동이다. 비관과 우울, 자살이라는 부정적 형국의 삶을 살던 인향이 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나 ‘세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를 보여 준 것만으로도 심천동은 동태적 공간으로 살아난다.

한편으로는 인향의 부활이 산 자의 부단한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심천동은 동태성을 확보한다. 바로 유한림의 행보로 인한 동태성이다. 유한림은 세 번에 걸친 노제를 치르고 회생수를 얻은 후에야 인향 자매를 소생시킨다. 왜 굳이 노제 의식을 반복해 재생 장치로 삼은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기소설나 야사를 통해 죽은 여인이 살아 돌아오는 서사에 익숙해 있던 당대인들이었다. 특히 유한림이 회생수로 인향을 부활시키는 대목은 영물매개부활과 같은 재생설화¹⁷⁾의 지류여서 더더욱 정태적일 수밖에 없는 부활 공간이었다. 세 번에 걸쳐 반복된 노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부활 공간에 설득력 있게 가미하기 위한 문학적 공력의 결과로 다가온다.

이처럼 서사 주체의 공간에서 원거리에 배치된 공간은 동태성을 확보하며 작품에 활력과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잔복골 목화밭은 정태성을 띤 인향당에서 사건을 외연으로 확장시킨 개성적인 공간이다. 목화밭에서 인향의 신병을 공모한 것은 정 씨가 김좌수로부터 의심받지 않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잔복골 목화밭의 치밀한 계략이 입체감을 띠며 동태적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한다. 또한 동헌은 인향 자매가 설원하는 과정의 긴장감으로 동태성을 띤다. 심천동은 새로운 가문으로 편입되며 부활하는 주인공의 재생을 담고 있어 동태적이다. 원거리 공간 구도는 기존의 관습적이고도 전형성을 띤 등장인물과 사건 전개에 역동성을 강화하는 성격을 선보인다.

16) 이금희, 앞의 논문(2005), 121쪽.

17) 류병일, 『한국서사문학의 재생설화 연구』, 보고사, 2000, 121쪽.

3. 문학적 기능

1) 혼재된 이념의 사회상 복제

『김인향전』의 서사 주체가 경험하는 공간은 제약되어 있다. 인향의 경우 부모의 공간과 인향당 공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향이 경험한 바깥 세계는 잔복골 목화밭과 심천동의 연못, 그리고 동헌 정도이다. 그나마도 잔복골 목화밭은 계모의 계략 속에서 경험한 공간이고 심천동 연못은 살해당할 처지에 놓여 경험한 공간이었으며 동헌은 원귀가 되어서야 경험한 공간이다. 생전에 경험한 외부 공간이라곤 목화밭이 전부인 셈이다. 인향의 공간이 이처럼 협소한 것은 그만큼 외연이 넓지 않았던 당대 여성들의 현실을 투영한 동시에 가부장권의 권위를 반영한 “침묵의 언어”¹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계모 정 씨는 인향과 같은 현실적 발판이 미약한 존재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이용한다. 현실적 발판이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정 씨는 김좌수 가문의 후원 인향당에 함몰되다시피 살아가는 인향의 정태적 사회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좌수 외에는 의지할 관계가 전무한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외부와 단절된 인향 남매에 대한 정 씨의 위해는 그래서 도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좌수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인형과 인향 자매를 몇 년씩 분리해 감금하고 의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간의 고립성을 악용한 결과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정태적 공간은 인향의 정서적 불안 증세를 가중시킨다. 정씨의 계략으로 신병을 앓는 순간에도 인향은 산 사람이 아닌 죽은 모친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정 씨의 학대를 부친이나 이웃, 관청에 토로하기보다 죽은 모친의 정에 의지하는 심신 미약 상태를 보인다. 김좌수가 자신을 살해하란 명을 내린 순간에도

18) 홀에 의하면 공간은 우리와 대화할 수 없지만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전종한 외, 앞의 책, 36쪽).

모친 사당으로 뛰어들어 이제 사시 향불을 누가 받들어 올리느냐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현실 자각을 잃은 듯한 정신적 착란 상태가 드러난다. “표면적으로 당대 사회의 가부장적 이념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¹⁹⁾ 그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심천동 연못에 투신한다. 인향은 가부장 체계의 유교적 통념을 고수하는 인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정태적 공간성의 영향을 받은 비관적이고도 음울한 내성을 간직한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에 정 씨는 인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잔악한 인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관습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인향을 모략하여 살해하려 한 배경을 짚어 보면 관습적 통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계모라고 향인만치도 대접을 아니하는 중에 또한 가장도 전실 자식만 사랑하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그 꼴을 보지 아니함이 마땅하다.”²⁰⁾는 계모의 말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원망을 내비친다. 그 원망의 기저에는 어엿한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 그 원인을 ‘전실 자식만 사랑하는 가장’의 탓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부장의 편견과 차등이 결국 계모인 자신이 하대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부장의 편견과 차등은 곧 유교적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신분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함의한 것이다.

정 씨는 유교적 통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정태적 공간에서 원거리 구도의 공간으로 인향을 유도한다. 목화밭에서의 정 씨는 자유자재한 연출가처럼 행동한다. “아무날 내가 인향을 꼬여 데리고 잔복골 목화밭에를 갈 터이니 그때를 타서 수고가 될지라도 떡을 가지고 목화 동냥 온 체하고 떡을 먹이면 값을 후하게 줄 터이니 동냥도 다니며 떡도 팔러 다니는 체하고 각별 조심하여 의심을 두지 않도록 하라”²¹⁾고 무당 할미에게 이

19) 서유석, 앞의 논문, 124쪽.

20) 『김인향전』, 178쪽.

21) 『김인향전』, 178쪽.

르는 정 씨의 모습은 치밀한 계략가처럼 보인다. 부덕(婦德)이란 예속보다 자신의 안위(安慰)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창의적인 슬기나 지혜는 오히려 규범을 포기한 계모에게서 더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계모가 그만큼 개성에 성공하고 있음을 반증”²²⁾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정 씨는 자신의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금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복인 춘삼에게 50냥을 주고 인향당 뒷담을 헐어 사람이 왕래한 흔적을 남기도록 한다. 무당 할미에게는 200냥을 주고 촌가마다 돌며 인향이 부정한 행실로 아이를 배었다는 소문을 내도록 한다. 이로 보아 정 씨는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김좌수의 경제력에 소속되기 위해 후실로 들어왔거나 혹은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 인향 남매를 시기한 것은 아니란 의미다. 후실로 들어간 여인이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다는 사실부터가 정 씨란 인물이 가부장권 사회에서 자신의 존립 내지는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욕망의 실현자로 볼 수 있다.

인향을 사지로 내모는 순간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면 당장에 때려죽일 터이지만 이 내 팔자 기박하여 남의 후취된 연고로 이런 변괴가 있어도 생사간을 말할 수가 없으니”²³⁾ 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스스로 하대함으로써 인향을 살해하는 데 김좌수의 분노를 이용한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 “양반의 자식이 되어서 불효가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집안을 망케 하였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보지 않음이 마땅하다.”²⁴⁾고 하며 가부장권 세계의 존속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 폐단을 이용한 술수일 뿐이다. 정 씨의 욕망은 독립적 자아로 설 수 없는 김좌수 가문의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기 위해 인향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처럼 정태성을 띤 인향당과 부친의 처소, 동태성을 띤 목화밭과 동

22) 한상현, 앞의 논문, 220쪽.

23) 『김인향전』, 190쪽.

24) 『김인향전』, 190쪽.

현, 심천동 연못 공간은 이념의 보수와 해체가 혼재하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사회 구조의 변동 속에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원했던 당대인의 혼재된 사고체계가 근거리와 원거리 공간 구도의 정태적이고 동태적인 양면성으로 나타난 것이다.²⁵⁾ 『김인향전』의 창작 기반에는 18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기존 이념으로 대응하고자 한 의식과 새로운 변화에 능동태로 대응하고자 한 의식이 정태적 공간과 동태적 공간 배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2) 공포담의 수용과 대리만족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의 정조는 무겁고 어둡다. 가장 안온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향이 부활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까지는 음울한 정서로 일관된다. 서사 주체의 고립되고 억제된 공간성은 기이한 발상으로 새로운 서사를 축조해 간다. 기존의 관습과 제도 아래 통제된 인향당에 충격의 파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포담이 가담한다. 이는 “사후세계가 인간세계와 다른 공간임에는 틀림없지만 존재의 원리는 동일하며 현생은 내생과 상관성을 지닌다는”²⁶⁾ 한국의 보편적 사생관이 투영된 공포담을 기저로 한다.

『김인향전』의 공포담²⁷⁾은 ‘불온한’, ‘미지의’, ‘두려운’ 소문에 의해 생

25) “문학작품의 공간적 질서는 작품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질서이면서 또한 작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결의 양상이다. 통일성이 없다면 작품이 와해되지만 대조, 대립, 갈등에 의한 대결이 없다면 작품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조동일, 앞의 책, 165쪽.)

26) 박대복, 『고소설의 사생관: 주인공과 그의 부모를 중심으로』, 『어문연구』91, 어문연구학회, 1996, 62쪽.

27) “원귀가 들려주는 ‘음성’이 개인적 사생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펼쳐 지기를 원했던 자살자들의 욕망과 결부되며, 그러한 서사화 과정을 유희적으로 향유하고자 했던 독자층의 기대와 희망을 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귀숙의 언급은 『김인향전』의 공포담 형성과 수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최

성된다. 정태적 공간의 인물들에게 불온하면서도 미지의 두려운 소문을 옮기는 대상은 외부인인 무당 할미다. 정 씨가 인향을 해하고자 하는 의중을 내비쳤을 때 무당 할미는 흉살 비방을 알려준다. “무덤 위에 난 돌 메밀로 떡을 하여 먹이고 큰 구렁이를 잡아다가 두엇 먹이면 얼굴에 새 알기름이 끼고 숨결이 높아 남 보기에 아이 뺨 모양과 같사오니 화타 편작인들 어찌 고치리오.”²⁸⁾ 민간에 소문처럼 떠도는 흉살 비방이었을 것이다. 이 비방이 실체를 갖춘 소문이 되어 인향을 위기로 내몬다. “자연 소문이 나되 좌수댁 소저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이를 배었다 하면 제 어찌 부끄러워 살기를 바라리오.” 실체를 갖춘 소문으로 인해 인향은 살해 위기에 놓인다.

『김인향전』의 서사에 마을 사람들이 인향을 향해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 씨의 사주를 받은 무당 할미가 민가를 돌며 “본 읍 좌수 김석곡의 딸 인향이 행실이 부정하여 아이를 배었다 하고 돌아다니니 이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여 공론이 자자하더라.”²⁹⁾는 문맥과, 감좌수가 관가에서 일하던 중에 “인향의 요란한 소문을 듣고 참괴함을 마지 못하여”³⁰⁾ 집으로 돌아와 소문의 진실을 헤아린 것으로 보아 향촌의 구성원들이 이미 그 소문을 실제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소문의 확장성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인향의 죽음을 설원하는 사건으로 넘어가는 데 기여한다. 인향이 죽은 지 반년이 되는 때부터 심천동에서 귀곡성이 울린다는 소문이 퍼진다. 이 소문은 고을의 관장이 거듭 번사하는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 고을 김좌수의 딸 형제가 심천

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서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339쪽.).

28) 『김인향전』, 186쪽.

29) 『김인향전』, 186쪽.

30) 『김인향전』, 186쪽.

동에 빠져 죽은 후로 원혼이 되어 원님에게 설원하러 들어간즉 원님마다 놀래어 죽기도 하며 혹 병들어 올라간다.”³¹⁾는 소문이 돌고 안주 읍이 폐읍되기에 이른다. 소문이 정태적 공간성을 허물고 ‘폐읍’이라는 극단적 동태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향의 죽음을 애도하는 주체들에 의한 소문의 확장성을 볼 수 있다. “애도 주체는 『김인향전』의 주체일 수도 있고, 작품 속에서 유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고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애도 주체는 『김인향전』의 향유층”³²⁾이란 접근은 당대의 대중이 충분히 공포담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동현은 관부 공간이고 부사의 공간은 더더욱 공적 영역이다. 그래서 일반 여성의 몸으로는 함부로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원귀가 된 인향 자매는 공적 공간에 소문의 실체로서 등장한다.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이 대면하는 동현 공간에는 공포담을 수용하는 당대인의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인향 자매의 등장은 매우 기괴하게 표현된다. 희미한 달빛 아래 은은히 신을 끄는 소리, 슬픈 울음소리, 소매로 낮을 가리고 치마 끈을 목에 맨 기괴하고 두려운 형상이다. 인향 자매가 공적 공간에 예를 갖춘 모습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억울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자 공포담을 수용하는 대중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기법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퍼져 인향당을 비극으로 덮친 소문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 여긴 것이다. 반대로 온 나라 안을 돌아 동현으로 진입한 소문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 공적 공간인 동현은 개방성을 띤다. 동현에서 인향 자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공간의 개방성에 힘입어 세간으로 새로운 소문이 확장되어 나간다. 진실이란 실체를 담은 소문이다. 한 개인의 죽음이 폐읍이라는 대사건으로 확장되고 왕까지 나서서 사건 해결

31) 『김인향전』, 206쪽.

32) 서유석, 앞의 논문, 134쪽.

에 나서는 데에 있어 소문의 확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문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공적 공간의 개방성이 확장된 까닭이다. 온 나라를 휩쓴 공포담은 그 실체보다는 소문에 따른 공간의 확장성에서 기인한다.

『김인향전』의 공포담은 살해와 자살이라는 참극이 빚은 소문이다. 기존 질서와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태적 공간에서 출발한 소문에서 기인한 것이다. “서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원한을 가진 인물이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형식으로 당사자의 피해 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³³⁾하는데 이러한 공유 의식은 정태적 공간에 함몰되지 않고 진상 규명의 소문 방식으로 목화밭, 심천동 연못, 폐읍지, 동헌, 조정 등 온 나라를 망라한 동태적 공간을 선사한다. 인향의 공간에서 가까운 구도의 공간일수록 비밀은 은폐되고 원거리 구도의 공간일수록 비밀은 해체된다.

인향 자매가 동헌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설원하고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공간 구도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한다. 인향이 자신의 생을 단절시킨 남성에게 의탁해 설원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공간의 정태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여자 귀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된다면 현실에서 관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 귀신에게 현실을 맡긴다는 위험한 발상이 조선시대 사대부 문학에 자리할 여지도 없었다.”³⁴⁾는 지극히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서술자가 겨냥한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이지만 독자는 다중의 초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읽을 수 있다.”³⁵⁾는 전제를 생각하면 『김인향전』의 저자와 수용층은 유교적 이념 아래 포석된 의미를 수렴한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공포담을 통해 설원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인향이 외부 공간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신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33) 최기숙, 앞의 논문, 350쪽.

34) 최기숙, 『처녀귀신』, 문학동네, 2010, 80쪽.

35) 최기숙, 위의 책(2010), 80쪽.

무엇인지, 인향의 오라버니 인함은 왜 인향이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관현의 힘을 빌리지 않았는지, 인향의 아우 인함은 왜 것처럼 수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는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철저히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 순응하는 정태적 공간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관습과 통념을 벗어난 공간이어야 정태적 삶을 깨뜨릴 수 있었다.

심천동 연못은 초월계의 힘을 얻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해 낸다. 인향당에서 가장 원거리에 배치된 심천동 연못에서 인향은 살아서는 깨뜨릴 수 없었던 정태적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 자신이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온다. 관습과 통념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피기스러운 공포담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 돌아온다. “인향의 이러한 삶의 양상은 현실 세계와는 별개로 또 다른 ‘집단의식의 낭만성’을 표출한 것”³⁶⁾으로 이 작품의 작가와 수용층의 욕망을 드러낸다. 단절로 끝낼 수 없는 생에 대한 애착보다 자신을 포박했던 세계의 논리를 해체하기 위해 기이하고도 두려운 대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공포담은 유기체처럼 마을로 향하고 산 자들의 공간을 폐읍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왕과 조정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할 정도의 위력(威力)으로 돌아온 공포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정의 대리처와 같은 동헌을 초월계와 소통시키며 개방한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이 모든 의문 뒤에는 당대의 민중이 품어 보았을 법한 ‘균등한 삶에 대한 대리만족’이 은닉되어 있다. 격변하는 시대와 사회 구조에 따른 능동태의 사고행위가 숨어 있다는 의미다. 신분적 압박과 계층적 부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정체성에 대한 열망이 원귀인 인향을 통해 터져 나왔고 ‘개아의 삶은 세계의 차등과 상관없이 균등’하다는 의식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작

36) 이금희, 앞의 논문(2005), 120쪽.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원역한 죽음이 이후 사회·국가적 차원의 사인 규명이 무시된 채 원귀를 등장시켜 해결하는 과정은 당대 상황이 사회 정의의 부재라는 일종의 아노미(Anomie) 상태였음을 암시해 준다.”는 견해도 『김인향전』에 나타난 공포담의 형성 요인을 설명하는 데 단서가 된다(한상현, 앞의 논문, 220쪽).

용하고 있다.

균등한 삶에 대한 대리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 구도는 곧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공간성은 주체의 행위에 따라 공간이 다층적으로 생성되는 등가적 속성을 보인다. 이는 세계의 작동 원리에 귀속되지 않는 생동하는 행위, 곧 경험에 관심을 둔 당대인의 문예적 관점을 드러낸 것”³⁷⁾으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유교적 통념 위에 있으면서도 동태성을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의 가치 창출 때문이다. 원근 구도의 공간 배치를 통한 공포담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 당대의 민중이 어떠한 논리로 공포담을 생성시키고 수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인향전』에 나타난 원근 구도의 공간 배치와 기능은 중요하다.

4. 결론

『김인향전』은 원근 구도의 공간 배치에 따른 정태적 삶과 동태적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공간 구도의 특질은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가정소설 하위 장르로서의 계모형 소설이라는 성급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장화홍련전』의 모방작 혹은 아류작으로 인식된 채 창의적으로 해석되지 못한 미진함에서 벗어나 이 작품만의 개성을 찾는 후속 연구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작품은 특정한 공간 구도를 통해 등장인물을 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대개의 고전소설 작품에서 추구한 아름다운 형상의 인물이라거나 추하고 악한 인물만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김인향전』의 인물들은 내면적인 심리 묘사나 행위, 대사를 통해 성격을 전달한다. “노복들도

37)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미』, 보고서, 2012, 100쪽.

다 정 씨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정 씨에게 보고했다”는 표현처럼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모질게 구는 정 씨의 성격을 개성화한다거나 “계모가 뒷방 구석에다 몰아넣고 일월을 못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일만 시키면서 음식과 의복을 제때 주지 않으니 기갈이 심하기만 합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향의 심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폐쇄성과 고립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 구도 안에서의 인물 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설의 근대소설적 가능성은 이와 같은 공간 구도의 구축으로 전대의 관습과 통념을 유지하면서도 인물의 개성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인향전』의 공간은 사회성과 역사성을 함의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강의)에서도 유용하다. 이 소설이 직시하고 있는 문제를 현재 삶의 대안으로 삼을 만한 것인지 교육적 측면에서 연결해 보는 것이다. 당대인의 문제를 체감하고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려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보수적이고 고독하며 절제된 삶을 살거나 자신의 본능과 욕망에 솔직하게 움직이는 인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당대의 관습과 통념에 위배되어 그 역할이 거세되고 배제된다. 반면 당대의 관습과 통념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욕망을 억제한 인물들은 행복을 쟁취한다.

21세기의 논리에서 보면 욕망에 솔직했던 정 씨나 무당 할미의 파멸에 대해 비판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18세기의 논리 위에서 『김인향전』을 바라보면 정 씨나 무당 할미는 기존 제도와 통념에 분명 위배되는 인물들이다. 선(善)의 논리 위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개인을 위한 것이든 집단을 위한 것이든 선은 최상의 가치였다. 『김인향전』은 그 선의 향방을 가정 비극에 빚대어 구축한 작품이다. 원근 구도로 배치된 공간들은 이 작품이 문제 삼고 있는 윤리적 선의 실현 공간과 비윤리적 공간을 모색하는 장치로 나타난다.

『김인향전』은 ‘집을 나서서 일정한 목적지에 이르는’ 노정형 서사를 품고 있다. 좁게는 집에서 심천동이라는 산중의 못을 거쳐 다시 집(유한림의 집)으로 돌아오는 노정이지만, 넓게는 자살이라는 사(死)의 경계를 돌아 생의 공간으로 귀환하는 노정이다. 그 노정의 거리가 짧은 길든 서사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공간들이 생성되는 가운데 사건이 흥미로워진다. 이러한 점을 여타 노정형 소설들과 대비해 공간 성격을 조명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사씨남정기>는 물론 <최척전>, <구운몽>, <육미당기>와 같은 노정형 서사의 소설과도 문학적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대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김인향전』이 가정 비극을 다룬 가정소설 장르만이 아닌 노정형 소설로서의 문학성도 가미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주목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제찬, 『김인향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김선영, 『원귀형 설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아랑전설,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김수연, 『모성 대상에 대한 자기서사의 단절과 재건: 장화홍련전』, 『고소설연구』 제40집, 월인, 2015, 141-168쪽.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김현수, 『김인향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0.
- 김현화, 『고전소설 공간성의 문예미』, 보고서, 2012.
- 류병일, 『한국서사문학의 재생설화 연구』, 보고서, 2000.
- 박대복, 『고소설의 사생관: 주인공과 그의 부모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1996, 51-70쪽.
- 방은숙, 『계모형 가정소설의 인물성격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백수근,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121-145쪽.
- 우미진,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의 대비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윤정안, 『김인향전의 의미 형상화 방식: 장화홍련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2호, 국어국문학회, 2009, 307-330쪽.

- 이금희, 「계모형 소설 연구: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9집, 월인, 2005, 113-135쪽.
-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167-188쪽.
- 이금희, 「김인향전에 나타난 노인(어른) 삶의 양상」, 『문명연지』 제4권 제2호, 한국문명학회, 2003, 113-137쪽.
-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수록 「김인향전」(활자본), 푸른사상, 2005.
-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윤경, 「계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5-43쪽.
-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 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동양고전연구』 제38집, 동양고전학회, 2010, 137-167쪽.
-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5.
- 정일승,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특징 고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서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325-355쪽.
- 최기숙, 『치녀귀신』, 문학동네, 2010, 80쪽.
- 탁원정, 『조선 후기 고전소설의 공간 미학』, 보고서, 2013.
-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계모형 가정소설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17집, 월인, 2000, 199-237쪽.

<Abstract>

The Spatial Arrangement and Function of the Perspectives in <Kim In-hyang jeon>

Kim, Hyun-Hwa*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atial arrangement and function of the perspective structure in <Kim In-hyang jeon>. The *Inhyangdang* is a central space where the main character reaches suicide in the midst of separation and imprisonment between brothers, hunger and physical labor, adultery and pregnancy. The space most closely placed around the *Inhyangdang* is the place of *Kim juasu*. The space is an anti-human space that kills her daughter because of the face of the family. The place of *Yuhanrim*, where In-hyang was fully revived, is also close to the *Inhyangdang*. The space of *Yuhanrim*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and society, and it tells the fact that Confucian values still exist. Spaces placed close to the *Inhyangdang* are exist customs and ideology in a static.

Cotton fields are space placed a long distance from the *Inhyangdang*. The space is where the characters of the primitive instincts who kill for their desires appear. *Dongheon* is a space that spreads secret events to the public through the method of 'rumour'. *Shimcheon-dong*, which is located at the farthest distance, is a dynamic space that contains the suicide, resurrection and revenge of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character. In the spaces placed far from the *Inhyangdang*, there are changes in the existing conventional and typical characters and events.

The space arrangement of the perspective structure in <Kim In-hyangjeon> created the space of static and dynamic. These spaces have a literary function that shows the social image in which the conservative and dismantlement of ideology were mixed. It also plays a literary function of pursuing surrogate satisfaction with equal life by utilizing horror stories that started from the tragedy such as murder and suicide.

Key Words: <Kim In-hyang jeon>, domestic novel, stepmother novel, horror story, spatial composition, space of classical novel

■ 논문접수 : 2021년 2월 27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21년 4월 20일